민요서 라다크 역사·문화를 찾다

문화 보존가 모룹 남걀 6년 간 취재… 다큐로 제작

코토 감독, '노래 수집가' 영화 제작
외부 문명 노출돼 훼손 위기 놓인 라다크 문화 보존 이야기 담아내
단편 영화서 시작돼 54분 장편으로



미국 시애틀 출신의 영화감독 에릭 코토(사진 오른쪽)는 인도 라다크 불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룹 남걀(왼쪽)을 6년 간 밀착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 '노래 수집가(The Song Collector)'를 제작했다. 사진출처=시애틀글로벌리스트닷컴

급속한 세계화와 문명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인도 라다크의 불교문화를 지키려는 한 남성이 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화제다.

미국 시애틀 출신 영화감독 에릭 코토는 인도 라다크 불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라다크 인 모룹 남걀을 6년 동안 밀착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 '노래 수집가(The Song Collector)'를 제작했다.

모룹 남걀은 1960년대부터 불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라다크에 학교를 설립하고, 문화 보존 활동을 시작해왔다. 이에 대해 에릭 코토는 "남걀의 활동은 내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를 비롯한 라다크 인들은 삶의 터전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라다크는 인도 잠무카슈미르주에 속하는 카슈미르 동부지역에 있다. 험한 산악과 깊은 골짜기, 높은 고원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세기 동안 독자적인 불교 왕국으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1960년 중반 인도 정부가 중국과 파키스탄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으로 라다크 왕국에 도로를 놓으며 외부 문명이 유입됐다. 이 때가 바로 모룹 남걀의 '라다크 지키기'가 시작된 계기다.

모룹 남걀은 라다크 지역의 구술적 문헌들을 되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이 결과 그는 1,300여 곡의 라다크 민속음악과 노래를 수집했다. 이 노래들은 라다크 지역의 문화와 언어들로 고스란히 표현돼 과거의 결혼 및 농경생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특히 16세기의 '레 왕궁(Leh Palace)'이란 노래는 당시 레 왕궁을 지을 때 라마승이 축복을 내렸다는 가사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라다크 왕국의 궁전을 엿볼 수 있다.

코토는 "노래와 구전설화들은 라다크처럼 문화의 세대 전승이 힘든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 유산"이라며 "남걀의 가족들이 대표적인 예다. 남걀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고향과 문화를 노래가사와 언어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남걀의 손자 보티는 현재 할아버지가 세운 학교서 민요를 통해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에는 현재 2000여명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매년 100여 명이 졸업하고 있다.

코토는 2009년 라다크 학교와 관련한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방문한 당시 모룹 남걀을 처음 만났다. 당시 남걀은 인도 전역에 걸쳐 국가적 영웅으로 알려져 있었다.

코토는 "남걀은 매우 흡입력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덕분에 영화에서 그의 성격이 잘 표현될 수 있었다"며 "원래 단편 영화로 제작하려 마음먹었지만 54분짜리 장편 영화로 제작, '노스웨스트 영화 포럼(Northwest Film Forum)에 출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코토는 영화제작을 위해 보낸 6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라다크 민속음악에 대한 다큐를 만든 것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라며 "이 영화를 통해 매력적인 라다크 문화를 체험하고, 라다크의 영웅 남걀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세계 최대 불교학원 '오명불학원' 축소되나

중국 정부, 5천명 선으로 학생 인원 감축

지난해 1천명 승려 돌려보내
철거 거부시 강제 집행 예고

세계 최대 불교학원 도시인 중국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이 학생 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6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를 수학할 수 있는 오명불학원에서 수행하는 스님의 숫자를 오는 9월 30일까지 5,000명 선으로 감축한다. 이미 중국 당국이 작년 1,000여 명의 수행승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며, 올해에도 1,000여 명의 비구와 비구니 승려들을 귀향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발 3,000m 이상의 쓰촨(四川)성 써다(色達)현에 자리잡은 오명불학원은 1980년 닝마파의 고승인 릭메 푼촉(晋美彭措)이 세운 작은 사찰에서 시작됐다. 릭메 푼촉의 명망을 듣고 주위의 티베트인들뿐만 아니라 한족 수행자들도 대거 몰려들었고, 1990년대에는 상주인구가 최대 3만 명 이상의 학원도시로 변화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기둥인 불교를 집단적으로 수학하는 모습을 중국 정부는 좋게 볼 리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릭메 푼촉에게 정식 지위를 주고 오명불학원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릭메 푼촉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2001년에 중국 정부는 무장경찰을 동원해 사원과 도시를 파괴하고 학인 스님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학인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나날이 발전해 최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수행 코스까지 만들어졌다.

중국 정부의 오명불학원 감축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 방침은 써다현이 아닌 상부가 결정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실제 중국 당국은 소방차량의 통과와 도로 건설을 위해 철거 대상 쪽방들을 표시했으며, 수행승들이 철거를 거부하면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쓰촨성 오명불학원 전경 모습. 최대 3만 7000명까지 수학했던 곳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원 축소 정책을 추진해 5000명 선으로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편, 써다현은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거하는 티베트인의 시위와 분신이 자주 발생해 중국 당국이 주목하는 곳으로, 티베트 불교 사원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극우불교단체 高敎 설립 '숨은 뜻' 있나

미얀마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탄압 등 극단 정서 교육 '우려'



'Mahaw Thadar'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는 선언문을 합창하고 있다. 〈사진출처=mizzima〉

미얀마의 극우주의 불교단체 '마바타(Ma Ba Tha; 민족종교 보호를 위한 애국연합)' 승려들이 양곤 교외 지역에 사립고등학교를 건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마바타가 이슬람에 대한 탄압 등 극단 정서와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단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6월 4일(현지시각) 미얀마 언론 'mizzima' 보도에 따르면 마바타 스님들은 양곤 레구 타운쉽(Hlegu Township)에 'Mahaw Thadar' 사립고등학교를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라'는 민족주의 정서를 가르치는 한편, 무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곤 외곽에 사립고등학교 세워
민족·종교 수호정신 교육 목적
학생 정서에 영향 미칠까 '논란'
설립자 "타종교 언급 안할 것"

마바타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이 학교를 건립한 아신 판냐 바라(Ashin Panya Vara)는 "학생들이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시민으로서 우리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리라 기대한다"며 "교육은 평균 고등학교 과정을 따르겠지만, 청소년들의 도덕관념과 불교에 대한 헌신성을 기르기 위해 스님들이 직접 종교 및 문학 프로그램을 가르칠 것"이라 설명했다.

1일(현지시각) 열린 개교기념식서 판냐 바라 스님은 '도덕과 시민으로서 행동강령'에 대해 1시간 동안 연설했다. 또한 학생들은 "나는 민족과 종교를 수호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는 선언문을 합창했다.

이와 관련해 마바타의 극우성향이 분열을 조장, 학생들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구의 85%가 불자인 미얀마서 최대 불교 근본주의 단체인 마바타는 그간 '무슬림 상점 보이콧' 등 반무슬림 활동을 주도해 왔다. 최근엔 이슬람교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로힝야'란 명칭 대신 '벵갈리(불법 이민자)'라 불러야 한다며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미얀마 내 이슬람교도들의 존재가 불교에 커다란 위협이라 주장하며 탄압을 일삼았다. 특히 2013년엔 정부를 압박해 '산아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불교도 여성과 무슬림 남성의 결혼을 막고, 출산한 여성이 다음 출산을 위해선 3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마바타는 이슬람교도의 출생부터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에 나선 이들의 행보에 '숨은 뜻'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판냐 바라 스님은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우리 종교(불교)에 관한 사상과 지식만 가르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라툰(Hla Tun) 교장은 "마바타의 가르침이 분열을 조장, 학생들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나는 정치나 민족주의적 사상을 고무시키는 일 보단 아이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라툰 교장은 "비록 마바타 스님들이 학교를 세웠을지라도, 우리는 교육과 관리를 모두 책임진다. 학교는 오직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학교는 약 2만㎡(6,100평) 부지에 최신식 5층 건물 1채, 기숙사 2채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 이름인 'Mahaw Thadar'는 '어린 미래불'이란 뜻이다. 입학비는 모두 무료이며, 우수한 학생들에겐 고등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9학년 과정에 약 150명 학생이 등록돼 있으며, 2017년도에는 10학년 및 11학년 과정 학생들도 모집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